

장흥군, '제20기 푸른장흥 건강대학' 힘찬 출발

지역사회 건강리더 육성 푸른장흥 건강대학 20기 개강식 개최
김성 군수 “군민 건강생활 지원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할 것”



장흥군은 지난 5일 장흥군보건소에서 '제20기 푸른장흥 건강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개강식에는 제20기 건강대학생과 동문회장단 등 60명이 참석했다.

제20기 푸른장흥 건강대학은 지난 5일부터 28일까지 23일간 8회 과정으로 운영된다.

식생활과 건강, 만성질환 관리, 응급처치, 뇌활성화 인지교육 등의 강의와 차후 명상, 요가 프로그램 등 통합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분야별 교수와 전문 강사들이 진행한다. 푸른장흥 건강대학은 지역민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삶을 도모하고자 2004년을 시작으로 제19기까지 총 1,02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자들은 경로당 운동지도자, 건강 캠페인 활동, 지역 봉사 등 지역사회 내 건강서포터즈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푸른장흥 건강대학을 통해 지역사회의 유능한 건강지도자를 육성하고, 군민의 건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담양군, 갱년기 극복 한의약 건강교실 참여자 모집

15일까지 선착순 20명 모집

담양군은 갱년기 극복이 필요하거나 예방에 관심 있는 지역 50~60대 주민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시절 중년 다시 태어나기, 갱년기 극복 한의약 건강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갱년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 갱년기 극복을 돕고자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오전 10시부터 11시 반) 5회 진행된다.

'갱년기의 이해 및 극복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의약 강의를 진행하고 우울증 상담, 영양교육, 체험 활동 등으로 구성된 갱년기 호르몬 변화로 힘들어하는 대상자들의 갱년기 극복을 도울 예정이다.

오는 15일까지 선착순 2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담양군보건소 방문보건팀(☎ 061-380-3992)으로 전화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2023년 참여자는 제외된다.

담양=박종영기자

장성군,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

장성군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사업'이 고령 운전자들에게 큰 호평을 얻고 있다.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사업'은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에 차선이탈 △차량 전방추돌 △보행자 근접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다. 자기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군민에 한한다.

올해 사업량은 총 23대로, 1대당 설치비용 50만 원을 전액 지원한다. 오는 1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자를 선정하게 된다. 영업용 개인차량이 1순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운전자가 2순위며, 병원 방문이 필요한 심신미약자 또는 보호자는 3순위다. 4순위는 생년월일 기준 고령자가 차지한다.

장성=김수권기자

영암군 공직자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교육 컨설팅'

영암군이 지난 2월 28일 영암읍 달마지센터에서 공직자가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교육 컨설팅'을 실시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 관계,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놓고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제도.

민선 8기 영암군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혁신 8대 프로젝트'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등 영암군민의 생애주기에 맞춤형 다양한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사회보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그 사전 작업으로 협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와 숙련이 필요하다.

이번 교육과 컨설팅은 복잡한 사회보장 제도와 협의 방법을 복지 현장 공직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나선 조영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암=조대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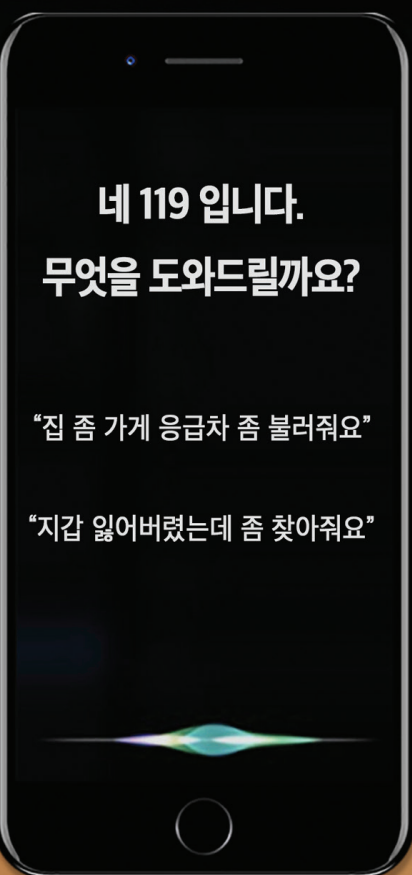
나주시, 어르신 '마음건강 이동상담' 운영

나주시는 어르신 고독사 문제와 우울증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마음건강 이동상담'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마음건강 이동상담'은 정신건강 서비스 취약 계층과 우울감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1:1 조기 감별, 스트레스 측정, 고위험군 우울 극복과 심리 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나주=송준표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